

북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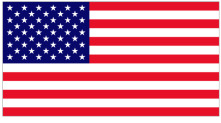
North America

북미주는 미국, 캐나다, 버뮤다(Bermuda), 그린랜드(Greenland), 산 피에르 & 미켈론(Saint Pierre and Miquel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21,779,847 sq km로서 전 세계 면적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는 약 3억 5천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산 피에르 & 미켈론은 프랑스 식민지로서의 자치구역으로서, 지금도 프랑스의 영향안에 있으며, 면적은 242 sq km이며, 전체 인구는 약 6,000여명이 된다. 버뮤다는 면적 53.2 sq km, 인구는 약 64,000명인 영국의 해외 영토가 된다. 그린랜드는 덴마크의 영향을 받는 자치 국가로서 면적은 2,166,086

sq km로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크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되며, 인구는 약 57,000명이 된다. 한편, 캐나다는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9,984,670 sq km가 되며, 인구는 약 3,500만 명이 된다. 미국은 면적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9,826,675 sq km가 되며, 인구는 약 3억 1,400만 명이 된다.

은혜한인교회는 미국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26.2 에이커(31,440평)에 이르며, 등록 교인은 6,000여 명이 넘고 있으며, 출석교인은 4,600여 명에 이른다. 상기 토지와 건물은 2001년에 구입이 되었으며, 새성전은 2009년 5월 말에 완성되었다. 원로 목사인 김광신 목사의 후임으로 2004년 9월에 한기홍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현재 56개국에 274명의 선교사(자체 파송 80%)를 섬기고 있다.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24명의 선교사(협력 선교사 12명 포함)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미국 내의 선교지로는 나바호 인디언(전체 약 30만 명)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이 백원일 선교사와 김영관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교 본부에서는 전 세계 선교지의 관리 및 선교사 지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 본부의 선교팀장으로는 양태철 목사가 수고하고 있으며, 선교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로는 양현정 사모(F/T; 선교행정, 청지기), 박혜숙 전도사(F/T; 선교행정), 박성범 전도사(P/T; 선교행정), 함완구 전도사(인턴; 선교행정), 김영환 전도사(인턴; 선교행정), 김용준 전도사(자비량; 선교행정), Jay Cho 전도사(인턴; 선교행정)가 수고하고 있다. 또한 각 선교지의 권역별 선교를 선교부의 6명 장로들인 구소련 권의김대규 장로, 아시아 권의 홍호철 장로, 중.남미 권의 이성배 장로, 아프리카 권의 홍석구 장로, 유럽 권의 권혁석 장로, 북미 권 및 포어권의 김성웅 장로가 잘 감당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본 교회의 선교사는 보안지역에서 사역을 자비량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



미국
U.S.A.



개요

미국은 군사력과 기술력, 농업에서의 강세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1787년 헌법 제정으로 세계 최초의 연방공화국이 되었다. 처음의 13개 주는 대륙을 가로질러 서부로 확장해 나가면서 50개 주로 되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미국은 유일한 세계 열강이 되었지만, 지구촌에서 그 미래의 역할은 불분명하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새겨져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 어느 나라도 이처럼 폭넓고 금지되지 않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 적은 없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가 공적 생활로부터 종교를 제거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는 방해받고 있으며, 철저히 사회를 세속화하고 있다.

- 수도: 워싱턴 D.C.
- 면적: 9,631,418 km² (3위)
- 주언어: 영어 / 스페인어 등
-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 인구(2011통계): 313,551,000
- 환율(현지화폐/US\$): USD1.00
- 국제전화코드: +1
- 인터넷 도메인: .us .gov .mil .edu
- 입국비자: 90일 무비자(한국여권)

종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만큼 성경적인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는 없다. 헌법에 기술된 정교 분리는 소수의 자유주의자들과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 공적인 종교 행사를 제한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기독교 77.6%, 무종교 16.5%, 유대교 1.7%, 이슬람교 1.6%, 기타 2.6%

종족

미전도 종족수(2011통계): 73 종족(미국 인구의 2.5%)

종족: 역사상 가장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이민 국가다. 해마다 1,120만 명의 불법 이민자와 100만 명의 합법적인 귀화자가 있다. 주로 이민을 통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백인 59.4%, 라틴 아메리카인 16.3%,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 12.6%, 아시아인 4.8%, 아메리카 원주민 0.9%, 기타 2.6%

GMI 미주 본부

세계 선교의 모델화



피송 선교사

양태철 목사

은혜한인교회 선교목사(선교팀장)
GMI 본부 선교사(미주 본부장)
GMU 선교학 교수(목회선교학 박사)
KWMC 부의장, KIMNET 실행총무

양현정 사모

은혜한인교회 선교재정
GMI 정지귀선교회 실무담당
GMI 국제총재 미주 비서(본부 선교사)
'1993년 1월 파송(러시아, 호주, 미국)

선교지 연락처

222 S. Brookhurst Rd., Apt. 3
Fullerton, CA 92833, USA

C: 1-714-553-5800 / 1-714-397-6624

E-Mail: cnieltaiyang@gmail.com (양태철)

E-Mail: hjyangmi@gmail.com (양현정)

기도 제목

1. 본부 사역을 통해 함께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mobilizer, facilitator, mediator, coordinator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 큰 네 바퀴(김광신 목사님, 한기홍 목사님/ 은혜한인교회 성도님/ 선교지 선교사님, 현지인 사역자 및 성도님/ 타 교회 및 선교기관)의 중간 바퀴의 역할(coordinator)을 잘 감당하도록
3.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케 하는 자'로서,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4. '물 든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사 58:11)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5.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행 20:24) 사도 바울과 같은, 세계를 품은 사역자가 되도록

사역 소개

1. 선교 동원, 선발, 교육 및 훈련(GMI MTC, GMU, 선교지 신학교 등)
2. 선교 행정(파송, 후원, 책무 관리, 개발)
3. 선교 협력(KWMA, KWMC, KIMNET 등)
4. 선교 강의 및 기타 제반 선교실무 등



중국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근미리)



모스크바 신학대학(원) 강의 후(근미리)



페루 신학교 특강 후(근미리)

나바호 인디언선교

북미주 인디언 선교의 센터



피송 선교사

백원일 / 영선 선교사
Phillip, Joseph
2005년 5월 파송

선교지 연락처

P.O. Box 2395 Monument Valley, Kayanta
AZ 86033 U.S.A
C: 1-213-219-0688
E-Mail: agasaiusa@yhoo.com

기도 제목

1. 나바호 현지인 목회자배출
2. 졸업생 취업 알선(일자리제공 후원업체가 많이 나오도록)
3. 결손가정 청소년 돕기 후원자가 많이 나오도록
4. 태권도 대회 출전 후원
5. 나바호 보호구역 내 황토 비누 생산 시설 후원

지역 소개

뉴멕시코, 콜로라도, 아리조나, 유타 4개 주에 걸쳐(16Million ACE) 형성되어 있는 Indian Reservation(인디언 보호구역) 내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는 나바호인들 중 약 7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현지 나바호 청소년 중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성(목회자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손 가정 어린이 돕기,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남가주 견학(바다보기 운동), 각종 태권도 대회 출전, 졸업 후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 나바호 인디언

북미주 인디언 선교의 센타



파송 선교사

김영관 / 명순 선교사
은아, 장희, 국희
2011년 10월 파송

선교지 연락처

2262 Tolani Trail, Flagstaff, Arizona, 86001
P. O. Box 250 Kayenta, AZ 86033
C: 1-562-355-7952
E-Mail: alexkim3@gmail.com
Website: www.jt4na.org

기도 제목

1. Monument Valley, UT 지역 내 인디언 교회와 목사관 수도 공급에 필요한 General Contractor 면허 소지하신 분을 위하여
2. 성경공부(Grace Encounter)와 한글 class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3. 방과후 학생들 Pick up을 위한 15인승 차량
4. 찬양 인도자와 Grace Encounter 주말 수양회를 위하여
5. 김영관 선교사 약해진 시력 회복을 위하여
6. 나바호 언어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위해
7. 가는 마을마다 예비된 영혼(제자, G-12 1세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8.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역 소개

파송 이후 현재까지 Monument Valley, UT 지역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성경과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 1) Basket Operation을 통한 목자, 제자 양육
- 2) 참된 제자를 위한 영성 훈련원, 신학 대학 설립
- 3) 마을마다 성경공부, 예배처소, 교회 개척(나바호 원주민 중심으로)
- 4) 영재학교(K-12)를 통하여 차세대 지도자 양성
- 5) 종합 커뮤니티(Jesus Town) - 선교센터, 교회, 종합 대학, 상가, 병원, 고아원.
- 6) 성경학교 Monument Valley, Four Corner Area.
- 7) 태권도 보급, Tent Making



건축선교

황무지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파송 선교사

김득원 선교사(은준)
연비, 주비, 창수, 경숙
1995년 12월 파송

선교지 연락처

659-P Avenida Sevilla, Laguna Woods, CA
92637
C: 714-366-5857
E-Mail: dwkroyal@gmail.com

기도 제목

1. 아이티에 씨티 솔레 지역 2곳에 교회건축이 현지인과 잘 협조하여 이루어지도록(타 교회와 공동으로 건축). 병행되는 직업 학교, 보건소,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2. 멕시코 6 개 지역에 계속 의약품, 소모품, 물품, 건축자재를 잘 보급할 수 있도록
3. 멕시코 썬퀸틴 지역 마스터 플랜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소개

건축 선교사로서 건축 전반에 걸쳐 자문, 설계, 시공, 감리, 돕는 사역을 수행한다. 현재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미니카 지역 (전재덕 선교사) 청소년 회관 건축 설계
2. 아이티 선교센터 교회건물, 보건소, 직업학교, 고아원 설계 및 시공
3. 빌라델피아 기도원 설계
4. 멕시코 San Quintin Bajaca 마스터 플랜, 건물 설계중
5. 멕시코 T.J. 지역 20M X 20M 건물 설계



길갈미션

중독 회복 사역의 멘토



피송 선교사

홍종철 선교사
2012년 6월 파송

선교지 연락처

9926 Birchdale Ave., Downey, CA 90240
H: 562-869-5820, Cell: 562-900-5014
E-Mail: jc@gilgal.org
Web: www.gilgal.org

기도 제목

1. Gilgal Recovery Ministry - LA에서 화요일 저녁마다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2. “감사의집”이라는 남성을 위한 중독회복 shelter에 회복중인 중독자들을 위하여
3. 길갈 미션 사역에 대한 지역교회 차원의 관심과 홍보와 support를 위하여
4. 개인의 영적부흥
5. Small group의 활성화 (약5: 16)
6. 18 ~28세 group의 탄생
7. 감사의집 내의 book study와 QT의 열매
8. Small group leader, 찬양 인도자와 모든 봉사자
9. 돕는 손길들과 교회 그리고 홍종철 장로 부부의 영성과 건강

지역 소개

개인이 중독과 회복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인해 중독의 비참함과 회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역을 시작했다. 1991년 LA 한인타운에 한국어로 진행되는 AA (Alcoholics Anonymous)를 시작하고 중독 회복을 돕기 시작했다. 2005년 6월 Gilgal Recovery Ministry라는 비영리 단체를 등록하고 화요일 저녁마다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6월 LA에 5 bed room house(3000 sf)를 구입, “감사의 집”이라는 남성을 위한 중독회복 shelter를 시작하여 현재 11명이 회복 중에 있다. 연령층은 20-60대까지 다양하며 중독의 종류는 술, 마약, 도박이다.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들과의 전화상담과 만남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중독은 심각한 문제이며 믿는 자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다. 근세 과학자들이 중독을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병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의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KPM

비즈니스 선교의 선구자



피송 선교사

강충원 선교사
2012년 6월 파송

선교지 연락처

539 E. Milano St, Placentia, CA 92870
C: 714-401-7421
E-Mail: dkang@hearcom.com
Web: www.kpmmission.org

기도 제목

1. ICCC 사역을 통해 현지 사업가들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2. 단기 BIM 선교의 사역을 위해
3. 매달 두 번 갖는 KPM meeting과 각종 세미나를 통해 KPM 사역이 확장되도록
4. Campus 사역(UCLA GSC)을 통해 열방 제자화를 이루도록
5.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사랑의 동산 사역을 위해
6. Funding 사역을 통해 현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더욱 큰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7. 중보기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역 소개

BIM(Business Is Mission)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KPM(Kings and Priests Ministries: 전 GSC, 1986~현재)을 설립했다. ICCC(International Christian CEO school)는 선교지 현지인들이 주님과 동업하여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단기 BIM 선교는 성공적인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양육, 멘토링하는 사역이다. 영성대학은 심도있는 말씀연구로 영적성장을 이루게 하며, Campus 사역(UCLA GSC)으로 열방 제자화를 꿈꾸고, 사랑의 동산(Glow of Love)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한다. 현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더 큰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중보기도를 지원하기도 하며, 세계를 다니며 집회 및 “Busines Is Mission(BIM)” 세미나 등을 인도하고 있다.





캐나다 Canada

보안상 선교사 명단 미공개



개요

캐나다는 북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이다. 이 나라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어류, 많은 삼림, 석유 등 광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캐나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수백년동안, 캐나다는 광대한 식민지는 영국에 의해 통치되었다. 퀘벡주는 1763년까지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다. 1800년대 후반에 이 식민지들은 점차 캐나다 자치령을 형성하며 통일되었고, 완전한 독립은 1931년에 왔다. 최근 캐나다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고립된 퀘벡으로부터 독립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다. 캐나다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세속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종교와도 의미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수도 : 오타와

면적 : 9,984,670 km² (2위)

주언어 : 영어, 불어 등

인구(2011 통계) : 34,476,688

환율(현지화폐/US\$) : CAD

국제전화코드 : +1

인터넷 도메인 : .ca

종교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사회 각계 각층에 급속한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종교/기타 12.1%

비기독교 4.4%, 유대교 1.2%, 시크교 0.94%, 회교 0.8%, 힌두교 0.75%, 중국/불교 0.36%, 바하이교 0.2%, 정령숭배 0.1%

기독교 83.5%, 명목 19.2%, 최대 64.28%, 출석율 20.8%, 성장율 0.9%; 개신교 32.2%, 최대 18.07%, 성장율 -0.5%

종족

본토인과 이민자들이 섞여 있으며 그들의 많은 수가 본래 그들의 문화 대부분을 간직하고 있다. 국제 결혼이 많아 추측으로만 분류가 가능하다.

영국 37%, 프랑스 27.7%. 대부분 퀘벡 주에 거주.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2개 국어에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프랑스인들 가운데는 분리주의자들 상당히 있다.

기타 유럽/혼혈인 23.6%, 유럽의 각국을 대표, 아시아 4.3%, 중동인 3.2%, 아프리카인 0.9%, 남미인 0.13%.

토착인 3.2%. 65개어를 쓰는 아메리카 인디언.

